

경제

날씨 탓? 백화점들 매출 부진에 '울상'

10월 매출 제자리걸음... '매서운 겨울 빨리오길'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매출 부진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날씨마저 도움을 주지 않아 외부투의 판매가 더더 가을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백화점 10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9% 증가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아로더어 상품(27%)과 화장품코너가 신규입점과 새단장으로 (12%) 신장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상품군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지난 9월30일~10월16일까지 진행된 가을 정기세일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한자릿수(6.4%) 증가에 그치는 등 4분기 들어 매출실적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올 가을 낮 기온이

비교적 따뜻해 겨울의류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판매돼 매출 부진을 부채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월 매출이 도리어 2%가 줄었다.

상품군별로 농산(2.6%), 패션·잡화(10%), 화장품·해외명품(5%), 엘레강스 화장품(6%), 전기·전자상품(5%) 등 만이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0월 한달 매출이 스포츠의류의 판매신장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8.7% 늘어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스포츠의류 35.9%, 아웃도어 31.4%, 영·골프 27%, 유아 22.6%, 남성의류 12.3% 각각 증가했다. 전국적인 매출도 한풀 꺾였다. 3분



광주신세계 키엘 오픈. 광주신세계 화장품 브랜드 키엘 매장이 최근 신규 오픈했다. 키엘매장은 1851년 뉴욕 약국에서 출발한 160년 전통의 코스메틱 브랜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까지 두자리수 성장률을 유지했던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빅3' 업체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0월보다 4.7% 매출이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5%, 신세계백화점은 8.

2%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용영업총괄팀장은 "11월에는 겨울 신상품 수요가 최대이고 다양한 상품행사 및 이벤트를 전개해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내년 장거리 해외여행 올해 티켓 구입하세요

내년에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을 이용할 항공 여객은 티켓을 연내로 구입해야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거리에 비례해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편안이 발의된 기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서남아 등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부터 유류할증료가 비교적 큰폭으로 내리는 일본과 중국, 소폭 인하되는 중동이나 대양주 노선은 티켓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의 유류할증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의 1개월 동안의 평균 항공유가에 따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은행들도 경기 부진에 위축?

내년 자산성장·수익 목표 올해보다 축소

시중은행들이 내년 자산성장률과 수익 목표를 올해 목표보다 낮추고 있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최근 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당기순이익 목표를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17%)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자산성장 목표는 실질 경제성장률에 불가상승률을 더한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준인 7%로 설정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국내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 목표를 6.8~7.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수익 목표를 올해의 2조원 내외에서 내년 1조원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자산성장 목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5%대로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국민은행도 올해 2조원가량인 순이익 목표를 내년에는 대폭 낮출 방침이며, 기업은행 역시 내실경영과 건전 성장에 중점을 두고 내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내년 자산성장 목표를 낮추는 것은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보수적인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3.1~3.5%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순이익 목표를 낮춘 것은 최근 수수료 인하로 내년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점과 현대건설 자본 매각이 등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 전국서 들쭉

냉면과 비빔밥, 자장면 등 외식비와 미용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1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조사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공개한 10월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외식비 8종 중 6종과 그밖의 개인 서비스 요금 5종의 평균 가격이 전월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냉면, 비빔밥, 삼겹살, 세탁료, 미용료 등 7가지의 가격이 인상됐고 경북에서 세탁료, 목욕

료, 갈갈수 등 5가지가 올랐다. 냉면은 가평이나 가장 비싼 서울에서 46원이 더 올라 7591원이 되는 등 전국 평균 6475원으로 17원이 인상됐다.

비빔밥은 인천에서 167원, 전북에서 100원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20원이 상승해 평균 가격이 5783원이 됐으며 갈갈수와 김밥은 각각 평균 4원과 3원 올랐다.

삼계탕은 부산에서 143원 올라 전국 평균 가격이 1만1186원으로 14원 상승했고 자장면은 전북에서 50원 오르는 등 평균 7원 올라 4091원을

기록했다. 여관 숙박료는 제주에서 1666원, 경북에서 384원 상승하며 전국 평균이 3만3422원으로 101원 올랐고 세탁료도 각각 27원과 34원 높아졌다.

이용료(커피)는 충남 400원, 전남 222원 등이 올라 평균 61원 인상됐으며 미용료(커피)는 전남(222원), 충남(200원) 등이 오르며 48원 상승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가격이 싸고 깨끗한 업소 2497곳(광주 215곳)을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코카콜라 8.6% 가격 인상 사이다 등 최대 9%까지 ↑

코카콜라는 콜라와 사이다 등 제품 공급가격을 6~9%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콜라는 8.6% 인상했고 나머지 제품도 최대 9%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는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제품값을 6% 안팎으로 올린 바 있다. 이번엔 소매 유통 채널에 대한 공급 가격을 올렸으며, 대형 마트에 대한 공급가는 아직 협상 중이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할당 정도 뒤면 마트 판매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화합·소통 위한 '추억의 가을소풍'

KJB광주은행은 1일, 광주은행 우수 임직원 110여명과 함께 'CEO와 함께 하는 추억의 가을소풍' 행사를 가졌다. <사진>

임직원 가을소풍 행사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감성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화합과 소통의 기업문화를 통해 임직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featuring a group photo and text about a 'CEO and staff autumn picnic' event.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s purpose and contact information.

A large grid of travel advertisements for Lotte JTB. Each cell contains details for a specific travel package, including destination (e.g., Europe, Japan, Hawaii), dates, and prices. The ads are organized by region and include various travel options like flights, hotels, and tours.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매출 부진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날씨마저 도움을 주지 않아 외부투의 판매가 더더 가을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